

번호 I-9

제 목	국문	산후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영문	Influence of postpartum stress and husband's emotional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경민 ¹ , 이강숙, 구정완, 김진홍 ² 가톨릭 산업보건대학원 ¹ ,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산부인과학 교실 ²			
	영문	Kyung-Min Lee ¹ , Kang-Sook Lee, Jung-Wan Koo, Jin-Hong Kim ²			
분 야	보건관리 (0)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0)
진행 상황	연구완료(0),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산육기는 신체·생리·심리·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모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부가되고 책임이 가중되는 생의 전환점으로서, 여러 가지 긴장요인이 작용하며 예기치 않았던 심리적 반응을 일으켜, 정상적인 산모들에서도 공허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흔히 나타난다. 산후 우울 증상은 여러가지 사회적 요소들 즉, 가족들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중재 요인으로 스트레스의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시키기도 한다. 교육수준의 향상과 산업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아기를 양육하는 모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혁가족화로 인체 등의 도움에 의존하기 어렵게 되어, 인적자원의 결핍으로 산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 우울증에 배우자의 지지와 산후 스트레스 및 기타 요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2.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차 병원에서 분만후 2주에서 7주 사이의 산모로 하였으며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29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설문은 Zung의 우울 설문 20문항과 조영숙의 배우자 지지 설문 15문항, 산후 스트레스 설문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외 사항으로 연령, 종교, 분만 형태, 아기의 건강상태, 고부간의 갈등, 우울증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은 일반적, 산과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배우자 지지 및 산후 스트레스 점수를 분산분석을 하여 비교해 보았으며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산후 우울점수는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 결혼에 불만족한 경우, 고부간의 갈등, 내성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배우자의 지지가 적은 경우, 결혼에 만족한 경우에 높았고, 산후 스트레스는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산전후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경우에서 높았다.

산후 우울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후 스트레스정도, 과거 우울경험, 고부간의 갈등, 내성적 성격, 아기 선호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본 연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3차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대부분이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나 산후 우울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요인이 배우자의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후 우울의 한 예방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다.